

눈에 띄지 않지만 성공적인 브라질 여자축구

카르멘 히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인 2010년 리베르타도레스컵(Copa Libertadores Femenina)의 종료를 알리며 브라질의 유력 일간지가 뽑은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는 빈 경기장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브라질 대표로 출전한 산투스 팀은 리베르타도레스컵에서 두 번째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25골을 넣으며 남미 국가의 내셔널리그 우승팀과 6번 경기를 치러 6번 모두 승리했다. 최하위는 페루의 이키토스 대학팀으로, 네 차례 경기에서 2골을 넣고 30골을 내준 끝에 탈락했다. 이런 경기 전적을 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여자축구 수준이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브라질 내셔널리그 우승팀인 산투스는 결승전에서 맞붙은 칠레의 에버튼,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우승팀을 압도했다. 여자축구 리베르타도레스컵은 경기당 300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모든 경기가 거의 빈 경기장에서 치러진 것이다. 경기당 평균 유료입장객 2,700명을 기록한 브라질 남자축구 4부리그(디비전 D)와 비교하더라도 관중이 1/9에 불과하다.

2009년 여자축구 리베르타도레스컵 결승전을 보기 위해 파카엠부 경



마르타 비에이라 다 실바 선수
(이미지 출처: <http://topnews.in/sports>)

기장에 15,000명이 모였던 적이 있지만, 이것도 텔레비전 광고와 산투스 팀의 마르타 비에이라 다 실바(Marta Vieira da Silva)가 출전한 덕분이였다.¹⁾ 마르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거푸 다섯 번이나 세계 최고의 여자축구선수로 선정되었으며(남녀축구를 통틀어 최고 기록이다) 브라질의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축구스타들에 비해 언론의 관심은 인색했다. 예를 들어, 2012년 마르타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MVP후보로 경쟁하던 기간에 브라질 언론은 네이마르의 골든볼 수상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다. 2009년 여자축구 리베르타도레스컵 결승전 동안 팬들은 “마르타가 카카보다 낫다”라고 칭찬했지만 기자들은 이 구호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산투스 팀은 연봉협상에서 다른 클럽만큼 높은 연봉을 제시하지 못해서 2010년 이후에는 마르타를 팀에 잔류시킬 수 없었고²⁾, 이후 마르

1) 마르타 비에이라 다 실바, 혹은 간단히 마르타(알라고아스의 도이스 히아초스에서 1986년 2월 19일에 태어났다)는 브라질의 축구선수다. 스웨덴의 우메아 FC, 미국의 LA 솔FC, 골든 프라이드, 웨스턴 뉴욕 플래쉬 팀, 스웨덴의 티레쇠에서 활동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었다.

2) 2009년 산투스에서는 6만 유로(아파트 비용을 포함하여)를 받았다. 마르타를 “프로

타는 스위스와 미국의 팀에서 활동했다. 마르타는 마라카낭 명예의 홀에 족적을 남긴 최초의 여성이며, 2010년 브라질의 유명한 잡지 『에포카』는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산투스 팀에서 보듯이 여자축구는 눈부신 기량 향상과 전술의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무관심으로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마르타가 출전할 때는 공중파 텔레비전이 산투스 팀 경기를 중계했지만, 출전하지 않은 시합은 유료방송으로 중계했다. 2010년 11월에 열린 남미컵은 마르타가 출전했고 또 2011년 독일 여자축구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승리 장면을 내보낸 채널은 단 하나도 없었다.

여자축구 시합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방송사는 몇 안 되기도 하지만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어법은 남자축구중계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여자축구 중계에서는 경기 이외의 정보를 대놓고 가르쳐주려고 하고 또 여자 선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브라질 대표팀 소속의 크리스티아니”,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탄 대표팀에서 뛰었던 누구누구”라고 얘기한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남자축구 중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선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콘, 호빙유, 네이마르가 브라질 대표팀 소속이라거나 브라질이 세계챔피언 자리를 다섯 번 차지했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자선수의 신체적 아름다움에 관한 남성우월주의적인 언급이나 선수들의 경기운영을 남자축구와 비교해서 칭찬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적 발언도 빈번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선수는 ‘소녀’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말을 통해 여자선수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고, 여성화한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여자축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부르던 로스앤젤레스의 솔 팀에서는 연봉으로 미화 40만에서 50만 달러(푸마와 암웨이스사의 후원계약을 포함하여)를 받았다.

약간의 역사

여자축구는 브라질에서 왜 그토록 비가시적일까? 또 가시적일 경우에는 ‘여자’라는 조건이 왜 그토록 두드러질까? 여기에는 역사가 있지만, 순진한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입지를 넓혀나간 역사가 아니다. 19세기 중엽 브라질에 축구가 도입되었을 때, 여자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여자는 ‘애호가’로서 축구장 바깥에 있었다. 실제로, 젊은 아가씨들은 풀미넨세 카리오카 클럽 브라질 남부의 여타 팀을 관전했다. 20세기 초에 산타 카타리나에서는 아니타 가리바우디 클럽의 스포츠 모임에 여성이 참여했다.

거듭 말하지만, 아니타 [클럽]의 경기장에서 열린 일요일의 파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라우로 물에르 팀의 위대한 미래를 짚어준 친절하고 젊은 여성 스포츠인들의 매력 덕분에, 또한 명예로운 젊은 여성들의 ‘경쾌한 의상과 훌륭한 취향’ (toilettes gaies et de bon goût) 덕분에입니다. 상류층의 아가씨들이 점점 더 많이 클럽의 파티에 찾아와서 아니타 [클럽]과 일체감을 넘치도록 보여줍니다.³⁾

그 시절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을 언급할 때에 포르투갈어 대신에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스포츠 용어로는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클럽 역사의 신기원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클럽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던 팀에서 흑인과 물라토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안, 여성의 역할 또한 애호자에

3) “Club Annita Garibaldi” en *Jornal do Comercio*, 8/4/1912, p. 2, cit. en Caroline Soares de Almeida, “Boas de bola: Um estudo sobre o ser jogadora de futebol no Esporte Clube Radar durante a década de 1980”,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Federal de Santa Catarina, 2013.

서 선수로 변하고 있었다. 브라질에서는 여자축구가 매우 일찍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축구가 남자축구와 동시대에 시작된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는데,⁴⁾ 변화의 시점은 1차 세계대전이었다. 그러나 축구에서 브라질은 20세기 초에 유럽만큼 여성이 눈에 띄게 부상하지는 못했다.⁵⁾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많은 팀이 창단되었는데, 대부분은 공장에서 전쟁터로 나간 남성을 대체한 여성노동자 팀이었다. 이 팀 중에 전설적인 디 커스 레이디즈FC는 미국 순회경기에서 남성들로 구성된 팀을 이겼다.⁶⁾ 어찌 되었건, 상파울로와 리오 데 자네이로에는 20세기 초에 축구를 했던 여성 팀의 기록이 남아있다. 역사학자 파비오 프란시니는 1940년대에 리오 데 자네이로의 토너먼트에서 경쟁하던 여성 팀이 적어도 10개가 있었다고 밝혀냈다.⁷⁾ 이런 토너먼트는 카시노 레알렙구와 에바 푸치볼 클럽과 같은 팀을 포함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브라질의 축구와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는 군사기관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 이것은 엄밀히 남성적인 것이다. 군대는 19세기부터 군인다운 신체를 만들어내는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축구 훈련을 실시했다.⁸⁾

프란시니에 따르면, 여자축구팀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고, 1940년대 중반에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는 거의 40개에 이르렀다. 이때 브라질은 독

4) Richard Giulianotti, *Sociologia do futebol: dimensões históricas e socioculturais do esporte das multidões*, Nova Alexandria, San Pablo, 2002.

5) Jean Williams, *A Contemporary History of Women's Sport*, Routledge, Londres, 2011.

6) 영국에서 여성들이 한 경기의 최초기록은 1895년이였다. 브리티쉬 레이디즈 풋볼 클럽의 주장이자 서기가 조직했고 런던 북부에 위치한 크라우치 엔드 운동장에서 런던의 북부와 남부의 팀들이 맞선 경기였다. Gail J. Newsham, *In a League of Their Own! - The Dick, Kerr's Ladies Football Team*, Scarlet Press, Londres, 1997, p. 2.

7) F. Franzini, "Futebol é 'coisa para macho'? Pequeno esboço para uma história das mulheres no país do futebol" en *Revista Brasileira de História* vol. 25 No 50, 2005, pp. 315-328.

8) Lino Castellani Filho, *Educação física no Brasil: A história que não se conta*, Papirus, Campinas, 1988.

재자 제툴리우 바르가스⁹⁾의 치하에 있었다. 여자축구가 수십 년간 금지됨으로써 엄청난 수난을 당하게 된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브라질에서는 왜 여자축구가 금지되었을까? 공식적 이유는 동시대 유럽에서 논하던 이유와 다르지 않다. 건강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일치는 놀랍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축구 세계화의 첫 신호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1차 세계대전 동안과 그 직후에 여성들이 점령하고 있던 사회적 영역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던 서구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유럽과 북미에서 성취한 양성 평등은 이내 무시되고, 축구는 각국의 특성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갔다.

브라질에서 여자축구 금지는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여 백인을 개량할 수 있도록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교해대던 우생학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흑인을 축구팀에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8세기부터 브라질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인종주의적 이론에 자극을 받아 브라질의 백인화 추구라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난 것이다.

제툴리우 바르가스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고, 여성을 단순한 모성적 기능에 한정시키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1941년 4월 14일자 행정명령 제3199호는 브라질 국가스포츠연맹과 지역스포츠위원회 창설 및 스포츠 단체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54항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에게는 타고난 조건과 맞지 않는 운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전국 스포츠 단체에게 필요한 지침을 공표해야 한다.”¹⁰⁾

여성을 축구에서 배제한 이 행정명령은 운동하면 생식능력이 저하된다고 여겨 보호하지는 것이다. 그러나 생식기가 신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더 큰 남성과 달리, 여성의 생식기는 신체 내부에 있다

9) F. Franzini, Op. cit.

10) Disponible en

〈<http://legis.senado.gov.br/legislacao/ListaPublicacoes.action?id=152593>〉.



코린치언스FC와 빌라 이우다FC의 창단승인 관련 당시의 신문기사
(이미지 출처: <http://www.correiodopovo.com.br/>)

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쉽사리 반박할 수 있는 생물학적 논거였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라는 가정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념 또는 이상적인 모델을 알 수 있다. 근육은 없고, 둥글둥글하고 기동성이 미약한 복스러운 몸이다. 이것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성적인 행동에 일치하는데, 바로 수동성과 복종이다.

통념(doxa)의 역설

1940년대부터 금지된 여자축구는 남성지배적인 행정명령을 산발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명맥을 유지했다. 그토록 적대적인 환경에서 “아름다운 경기”는 어떻게 생존했고, 여자축구 금지명령과 행위에 표현된 남성의 이

데올로기적 지배에 어떻게 저항했는가? 극소수의 산발적인 저항이 없지는 않았으나 1970년대까지 여성들은 왜 금지 규정을 지켰는가?

루이스 카를루스 리고가 언급한 예를 보자. 1950년에 브라질 남부에 있는 펠로타스 시에서 최초의 두 여자축구팀인 빌라 이우다FC와 코린치언스FC가 창단되었다. 여자축구 금지 규정에 도전한 것이다. 결국 지역스포츠위원회가 제재할 때까지 활동했다.¹¹⁾ 대부분의 선수들은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연령대의 젊은이들이었고, 중하층 출신이었으며, 축구클럽 인근에 살고 있었다. 포워드였던 제우시 같이 선수들 중 몇은 매우 탁월한 기량을 보였다. 한 지역 신문에서는 “훌륭한 소질을 가진 멤버”로서 “5대 2로 앞 팀의 승리로 끝난 일요일의 경기에서 제우시가 보여준 정확한 볼 컨트롤은 게임메이커라고 부르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라고 묘사했다. 제우시의 자질에 대한 이 짧은 묘사에서 여자축구에 대해 보여주는 진지함에 주목해보라.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로서의 신체적 기량이 강조되고 있다.

빌라 이우다FC와 코린치언스FC는 생명이 짧았다. 펠로타스 시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다. 비록 역사가들은 사례가 많지 않았고, 유명세를 얻은 경우에도 지역스포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말이다. “편견에 의해 코너로 몰린 채, 이 운동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했다.”¹²⁾

피에르 부르디외가 독사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질서에 대한 순종에 있어 놀라운 것은 바로 위반이 드물었다

11) 이전에는, 이 도시에서 여성들의 축구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이국적이고 희극적인 성격의 산발적인 몇 번의 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시의 예를 케이롤로 서커스에서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흔치않은 소개를 찾아볼 수 있다. 글에 따르면, 대중을 즐겁게 하는 시합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두 여자축구팀이 링에 들어갔다.” En *Opinião Pública*, 14/1/1930, citado em Luiz Carlos Rigo et al., “Notas acerca do futebol feminino pelotense em 1950: um estudo genealógico” en *Revista Brasileira de Ciências do Esporte* vol. 29 No 3, 2008, pp. 173-188.

12) Tomás Mazzoni, “História do futebol no Brasil 1894-1950” en *Gazeta Esportiva*, 1950, p. 289.

는 점이다.¹³⁾ 버지니아 울프의 논픽션 저서 『3기니』에서¹⁴⁾ 영감을 받아 “지배의 최면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인 장에서, 부르디외는 남성지배의 메커니즘을 하위계급의 공모에 의존하는 상징적 폭력의 한 형태로 제시한다. 통념이란 하나의 규범으로, 말해지지 않는 것으로, 도전과 비판의 틀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믿음과 관습의 총합이다.¹⁵⁾

여자축구 금지령은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1941년의 행정명령은 1970년대 말까지 유효해서 여성들이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배제는 1965년의 심의 제7호에¹⁶⁾ 더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 심의에서는 이제 막 권력을 잡은 군사독재정권이 여성에게 금지된 스포츠—레슬링, 멀리뛰기, 축구—를 명시하고, 여타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여의 강도를 규제했다.

그리하여 남성지배가 줄어들고 여성을 위한 기회의 장이 확장되고, 서구세계에서 성별간의 관계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던 1970년대에 브라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브라질인의 상상계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축구에서 여성의 배제를 강화시켰다. 그러므로 여자축구를 금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축구는 국가의 민족주의와 사회정치적 근대화의 도구이며, 그 어떤 사회적 관행보다도 국가정체성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중으로 배제 당했는데, 독재로 인하여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선거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또 남성이 공유하고 또 상상계에서 남성을 브라질인으로 만들어주던 축구라는 언어에 참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13) P. Bourdieu, “On Male Domination” en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en inglés, 10/1998, disponible en <<http://mondediplo.com/1998/10/10bourdieu/>>, fecha de consulta: 15/8/2013.

14) V. Wolf, *Three Guineas*, Harcourt, San Diego, 1938.

15) P. Bourdieu, Op. cit.

16) Disponible en <<http://cev.org.br/biblioteca/deliberacao-n-7-2-agosto-1965/>>.

상징적 폭력은¹⁷⁾ 그 비가시성으로 인해 더욱 효과적이었다. 여성들은 이러한 조치를 자신들의 성이 가진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여겼고, 배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결여로 인식했다. 우리는 이를 재닛 레버가 브라질에서 한 몇몇 인터뷰에 대한 기술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시카고대학 박사논문을 위해 십년동안 수행한 민족지학 연구인 『축구에 미치다』에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이 남성적 지구력과 거친 신체접촉을 필요로 하는 남성의 게임이라고 믿는다. 함께 대화를 나눠본 여성들은 자신들의 배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 관심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나의 질문에 그들은 익살스런 표정이나 웃음으로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여자애들이 축구팀을 조직하는 것은 브라질스포츠연맹의 규범에 어긋난다고—몇 명은 연방법에 위반된다고까지— 말했다. 1973년에 내 질문을 받고 브라질스포츠연맹의 한 관리는 웃으면서 여자애들이 축구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므로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70년대 말, 몇몇 여성들은 팀을 결성하기 시작하자 1981년 3월에 연방정부는 여성축구팀 후원 및 경기 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정말로 공포했다.¹⁸⁾

브라질 축구에서 여성의 복귀는 브라질의 정치개방 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 과정은 체육교육의 환경에 대한 열띤 논쟁에 의해 고무되었는데, 외국 특히 프랑스에서 좌파 여성들의 귀국에 자극받은 브라질 페미니즘 운동에 스며들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 축구 금지법이 폐기된 해가 1979년으로 독재에 대해 싸우다 망명한 여성들이 브라질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준 사면법이 통과된 해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반독재투쟁 및 계급적 억압의 철폐를 주장하던 마르크스주의 경향을 가진 여러 단체에서 시작된 페미니즘이 70년대 말

17) P. Bourdieu, *The Masculine Domin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Palo Alto, 2001.

18) J. Lever, *La locura por el fútbol*, FCE, México, df, 1985, pp. 164-165.

에 이르러 망명지에서 육체와 성적 권리 및 생식 권리 문제를 제기한 브라질 페미니스트의 귀국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¹⁹⁾ 이 논쟁의 한 주요한 측면은 체육교육의 환경과 연계되어 있던 페미니스트들이 이 큰 승리를 성취해냈다는 점이다. 국가스포츠위원회의 1979년 심의 제10호의 공포로 브라질에서 축구 및 기타 스포츠에 여성참여 금지가 종식된 것이다.

1980년대부터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여자축구팀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²⁰⁾ 이들은 전통적인 클럽의 축구부 소속인 팀도 있었지만 일반 기업체 소속인 팀도 있었다.²¹⁾ 여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완전히 얻은 것은 아니었다.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우스꽝스런 육체보호 규정과 더 짧은 경기시간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는 전후반 각 35분으로 나누고, 중간에 15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선수는 가슴보호대를 해야 했고, 축구용 반장화에는 스파이크를 달 수 없었다. 공은 가슴으로 받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손으로 잡는 것과 동일한 반칙으로 간주했다.²²⁾ 축구의 세계로 들어간 여성들은 운동 능력이 아니라 특정한 신체적 특성으로 남성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만 했다. 즉 ‘여성적’이어야만 했다. 상파울루축구연맹에 따르면, 여성적이라는 것은 잘 정립된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어느 면에서도 남성처럼 보이는 얇게 하는 것이었다. 짧은 머리 대신에 긴 머리, 복서용 헐렁한 바지 대신 꼭 끼는 짧은 바지, 맨얼굴 대신 화장을 해야만 했다.²³⁾ 상파울루축구연맹의 또 다른 자료는 “미디어에 비친 이미지, 개인의 스타일과 성장에 관해 선수들에게 조언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파울루축구연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름다움은 경쟁에 참여

19) Miriam Pillar-Grossi, “Feminismes et générations politiques des années 90 au Brésil” en *Cahiers du Cedref* No 6, 1996, pp. 169-190.

20) C. Soares de Almeida, Op. cit.

21) 예를 들면, 기사를 믿어본다면, 1870년대에는 게이바들에 의해 시합이 조직되었다. *Placar*, 9/1996, p. 50.

22) V. <<http://gremiofeminino.wordpress.com/historia-do-futebol-feminino/>>.

23) Documento de 2001, preparado junto con Pelé Sports & Marketing. Ver C. Soares de Almeida, Op. cit.

할 소녀 선발에서 기본적 요건이라고 지적한다. 연맹의 회장 에두아르두 파라에 따르면 선수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토너먼트에서 성공하기 위한 주요 목표 중 하나인데, “남성우월적인 태도에 지배되어 있는 여성축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축구의 이미지와 여성성의 결합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연맹의 또 다른 지도자인 헤나투 두프랏은 이보다 훨씬 확고했다. “어떤 선수도 짧은 머리를 하고 시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²⁴⁾ 그러므로 이 차별적이고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규정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브라질 팀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시시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파울루선수권전에 출전할 수 없었다.

여성은 신체가 연약하다고 단정하고 스포츠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였으나, 최초의 여자축구 브라질선수권전은 1994년이 되어서야 개최되었다. 여자축구의 재개는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던 리오 데 자네이로의 클럽 라다르 팀이 이끌었다. 클럽 라다르가 국제경기에서 일련의 승리를 구가하기는 했지만, 브라질 여자선수들이 제대로 축구장에 복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996년의 올림픽경기였다.

실제로 브라질 여자축구는 긴 여정을 걸어야 하고, 비록 해외에서 이주민 자격으로 경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²⁵⁾ 브라질 여성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 활동은 부진했다. 현재는 몇몇 지방에서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고, 2013년에는 20개 팀이 참여한 브라질여자축구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들 중 바스쿠 다 가마 단 한 팀만이 남자들이 경쟁하

24) Eduardo Arruda, “FPF institui jogadora-objeto no Paulista” en *Folha de S. Paulo*, 16/9/2001, disponible en

www1.folha.uol.com.br/fsp/esporte/fk1609200119.htm, 검색일: 2013/10/31.

25) C. Rial, “Rodar: The Circulation of Brazilian Football Players Abroad” en *Horizontes Antropológicos* vol. 14 No 30, 2008, pp. 21-65, disponible en http://socialsciences.scielo.org/scielo.php?pid=S0104-71832008000100007&script=sci_arttext, fecha de consulta: 15/8/2013.

는 브라질축구 선수권대회인 세리에 A에도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축구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약 40만 명의 브라질 여성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여자축구 인구 1,200만 명, 프로선수 2천 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이며, 브라질 여자축구 분야가 지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최근 수십 년간 변화해왔지만 여자축구선수들은 가정 안팎에서 이중으로 노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거의 남지 않는, 아직도 남성우월주의적인 사회에서 편견의 대상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브라질 남자대표팀 전 코치인 조아웅 사우다냐의 유명한 한마디는 이 나라의 남성 대다수에게 여전히 사실이다. “당신 아들이 자기 애인을 데리고 와서 ‘방구 팀 수비수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지요.” 클럽 아틀레티쿠 방구는 리우 데 자네이로의 방구사(社)의 공장 노동자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1904년에 설립되었다. 비록 사우다냐가 신문기자이자 좌파 지식인이고 군사독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언급은 여성이 하는 축구에 관한한 수많은 남성(그리고 수많은 여성)에게서 보이는 남성우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여자축구가 비록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운동장에 여성들이 들어가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남성우월주의적인 관점이 팽배해 있다. 오늘날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관능적인 모델을 찾고 있다. 그런 식으로 가부장주의적인 브라질 사회가 여성을 부인이나 창녀를 만드는 고전적 분류가 축구장에서도 다시 재확인된다.

혹시 이런 관점은 과거 브라질이라거나 일부 사람에게만 한정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스포츠미디어의 웹사이트를 본격적으로 없어서일 것이다. 여성들이 운동선수가 아니라 흔히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는 미스, 뮤즈, 연인으로 나오는 것을 보려면 브라질의 『글로보』(O Globo)나 스페인의 『마르카』(Marca)와 『아스』(As)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최근, 브라질의 클럽들은 미국식 모델을 따라 치어리더를 도입했고, 전국적 차원에서 가장 아름다

운 뮤즈를 선발하는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다.

여자축구 부서가 있던 큰 클럽들 중 하나인 산투스FC 또한 팀에 ‘인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마르타가 카카보다 더 낫다”는 찬가는 정말이지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되기까지, 브라질의 제2, 제3의 마르타는 제2, 제3의 카카보다 더 지난한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신체활동을 금하고, 종속된 위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젠더, 민족, 상상계를 표현해내던 축구를 여성들에게 금지하는 것은²⁶⁾ 거대한 공동체와 광범위한 사회적 관습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감정을 표현하던 경기에서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없는 여자들은 수동적이고 복종적일 뿐 아니라 2등 국민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관념이 구실로 제시된다. 여자축구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바로 그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 정체성 확립의 가장 중요한 공간들 중 하나에서 여성을 침묵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런 금지에서는 어떤 사실이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볼 수 있다. 적어도, 아르준 아파두라이가 인도의 크리켓에서 여성을 배제한 논지를 고려할 때는 그러하다.

여성들은 크리켓의 선수이자 애호가가 되었다. [...] 국가 전체를 고려했을 때, 선수, 매니저, 해설가, 애호가 그리고 현장 관중의 면에서 크리켓은 여전히 남성이 지배하는 활동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인도 여성의 시각은 이중적으로 배제되어왔다. 남성이 하는 경기를 자주 보고 있으며, 다른 남성이 경기하는 것을 바라보는 남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

26) Gilberto Freyre, *Sociologia*, José Olympio, Rio de Janeiro, 1945; Roberto DaMatta et al., *Universo do futebol: esporte e sociedade brasileira*, Pinakothek, Rio de Janeiro, 1982.

다.²⁷⁾

축구경기를 관람에서 작동하는 동성애적 요소는 외부에 있는 타자의 시각, 이 경우에는 여자의 시각에 의해 드러난다. 여자를 배제함으로써 남자는 남성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남자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자의 신체는 남자와 같은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딱지를 붙였으며, 이와 동시에 모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망토를 덮어씌워 신성화하였다. 오늘날 이런 모성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여자는 경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관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 있을 때는 치어리더, 뮤즈로 활동하거나 스포츠관련 언론의 관능적 사진 속에서 남성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스포츠관련 언론에서, 축구 관람객으로서 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이러한 그림을 바꿔놓고 있다. 그러나 미래는 다른 글에서 다뤄야할 주제일 것이다.

[박은영 옮김]

카르멘 히알(Carmen Rial) - 인류학자.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연방대학 인류학과 교수.
박은영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

27) A.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e polis, 2001, p. 111.